

2014년도 7월 26일 시행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한국사(D책형)

해설 - 전한길 교수(공단기)

문 1. 밑줄 친 '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왕의 명령을 받아 편찬한 기전체 사서로 편찬 동기를 “학사 대부(學士大夫)가 우리 역사를 알지 못하니 유감이다. 중국 사서는 우리나라 사실을 간략히 적었고 고기(古記)는 내용이 졸렬하므로 왕, 신하, 백성의 잘잘못을 가려 규범을 후세에 남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연표 3권, 본기 28권, 지 9권, 열전 10권 등 총 50권으로 구성되었다.

- ① 민간 설화와 신라의 향가 11수를 수록하였다.
- ② 열전에는 김유신을 비롯한 신라인이 편중되었다.
- ③ 동명왕의 건국 설화를 5언시체로 재구성하여 서술하였다.
- ④ 민족 시조인 단군을 강조하고 발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문 2. 밑줄 친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토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① ㉠ - 노태우 정부 시기에 공포되었다.
- ② ㉡ - 사사오입 개헌으로 시작되었다.
- ③ ㉠ - 4·13 호헌 조치로 효력을 유지하였다.
- ④ ㉡ - 6·10 민주 항쟁의 결실이었다.

문 3. (가), (나) 시대의 사회상과 유적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동물의 뼈나 뿔로 만든 뼈 도구와 펜 석기를 가지고 사

냥과 채집을 하면서 생활하였다.

(나) 고인들이 만들어지고 계급이 형성되는 한편 군장국가가 등장하였다.

<보 기>

ㄱ. (가) - 동굴 유적지로 덕천 승리산, 제천 점말, 청원 두루봉이 있다.

ㄴ. (나) - 금속을 다루는 전문 장인이 나타나고 사유 재산 제도가 발달하였다.

ㄷ. (가) - 반달 돌칼과 구멍 뚫린 돌자귀를 만들어 농경에 활용하였다.

ㄹ. (나) - 서울 암사동과 황해도 봉산 지탑리가 주요 유적지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문 4.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정책이 시행된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양역의 폐단이 심하여 백성들이 살 수 없을 지경이니 이제 군포를 영구히 1 필로 감한다. 부족해진 재정은 어장과 선박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서 거두고, 선무군관에게서 1 필씩 거두어 보충하도록 한다.

- ① 결작세가 신설되면서 부담이 농민에게 전가되었다.
- ② 호포제가 실시되었지만 백성의 부담은 여전하였다.
- ③ 신혜통공으로 상업 활동이 늘면서 군포 부과 대상이 줄었다.
- ④ 감영과 병영이 독자적으로 군포를 거두면서 군포 부담이 증가하였다.

문 5. 밑줄 친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가 글을 올리기를 “이의민은 성품이 사납고 잔인하여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아랫사람을 능멸했습니다. ... (중략) ... 원컨대 폐하께서는 태조의 바른 법을 따라서 이를 행하여 빛나게 중흥하소서. 이에 삼가 열 가지 일을 조목별로 아뢰입니다.”

문 10. 조선시대 관계(官階)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료의 품계는 정 1품에서 종 9품까지 18등급으로 하였다.
- ② 행수 제도를 마련하여 가능한 관직과 관계가 일치되도록 하였다.
- ③ 정 7품 이하는 참하관이라 하며, 목민관인 수령에 임용하였다.
- ④ 정 3품 통정대부 이상은 당상관이라 하며,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였다.

문 11. 다음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색이 푸른데 사람들은 이를 비색(翡色)이라 한다. 근년에 들어와 제작이 공교해지고 광택이 더욱 아름다워졌다. 술병의 형태는 참외와 같은데, 위에는 작은 뚜껑이 있고 마치 연꽃에 얹드린 오리 모양이다.

- ① 강진과 부안이 생산지로 유명하였다.
- ② 왕실과 관청 및 귀족들이 주로 사용하였다.
- ③ 송나라 사신 서공이 그 아름다움을 극찬하였다.
- ④ 신라 말기 상감청자가 제작되면서 무늬가 한층 다양해졌다.

문 12. 밑줄 친 '이것'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짐은 평범한 가문 출신으로 분에 넘치게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재위 19년 만에 삼한을 통일하였고, 이제 왕위에 오른 지도 25년이 되었다. 몸이 이미 늙어지니, 후손들이 사사로운 인정과 욕심을 함부로 부려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게 할까 크게 걱정이 된다. 이에 이것을 지어 후대의 왕들에게 전하고자 하니, 바라건대 아침 저녁으로 펼쳐 보아 영원토록 귀감으로 삼을지어다.

- ① 연등회와 팔관회의 행사를 축소할 것
- ② 풍수 지리 사상을 존중하고 서경을 중시할 것
- ③ 간언을 따르고 참언을 멀리하여 신민의 지지를 얻을 것
- ④ 농민의 요역과 세금을 가볍게 하여 민심을 얻고 부국 안민을 이룰 것

문 1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그 나라 혼인 풍속은 여자 나이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 약속을 한다. 신랑 집에서는 여자를 맞이하여 다 클 때까지 길러 아내로 삼는다.
(나) 큰 세력을 가진 이는 스스로 신지(臣智)라 하고, 그 다음

은 읍차(邑借)라 한다.

- ① (가) - 해마다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 ② (나) -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고 벼농사를 지었다.
- ③ (가) - 대가들이 각기 사자조의 선인을 거느렸다.
- ④ (나) - 도둑질한 자는 물건 값의 12배를 변상하게 하였다.

문 14. ㉠ ~ ㉤에 해당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고구려 ㉠왕 때 전진에서 승려 순도(順道)가 불상과 불경을 전하였으며, 백제는 ㉡왕 때 동진에서 고승 마라난타(摩羅難陀)가 불교를 전하였다. 신라의 불교는 ㉢왕 때 고구려에서 온 승려 목호자가 전하고 소지왕 때 다시 고구려에서 승려 아도가 전하였으나 ㉣왕 때 이차돈의 순교 후 비로소 공인되었다.

- ① ㉠ -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 ② ㉡ -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남부여라 하였다.
- ③ ㉢ - 황룡사를 짓고 9층 목탑을 건립하였다.
- ④ ㉣ - 법령을 반포하고 상대등 제도를 설치하였다.

문 15. 밑줄 친 ‘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금이 교지를 내렸다. “지금 그의 제자 김일손이 찬수한 사초 내에 부도덕한 말로 선왕의 일을 터무니없이 기록하였다. ... (중략) ... 성덕을 속이고 논평하여 김일손으로 하여금 역사에 거짓을 쓰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 ① 조의제문을 지어 무오사화의 원인이 되었다.
- ② 길재의 학통을 잇고 세조 대에 정계에 나아갔다.
- ③ 제자들이 과거를 통해 주로 삼사 언관직에 진출하였다.
- ④ 국가의 여러 행사 규범을 담은 『국조오례의』 편찬에 관여하였다.

문 1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어른과 아이(父老子弟)와 공사천민(公私賤民)은 모두 이 격문을 들어라. 무릇 관서는 기자와 단군 시조의 옛터로, 훌륭한 인물이 넘친다. ... (중략) ... 그러나 조정에서 서

토(西土)를 버림이 분토(糞土)나 다름없이 한다.

(나) 금번 난민이 소동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전 우병사 백낙신이 탐욕을 부려서 수탈하였기 때문입니다. 병영에서 포탈한 환곡과 전세 6만 냥을 집집마다 배정하여 억지로 받으려 하였습니다.

- ① (가) - 금광 경영이나 인삼 무역으로 자금을 마련하였다.
- ② (나) - 노비 문서의 소각과 탐관오리의 엄징을 요구하였다.
- ③ (가) - 세도 정권과 특권 어용상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 ④ (나) - 조정은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여 세제 개혁을 약속하였다.

문 17. 다음 상소문을 올린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저들의 욕심은 물화를 교역하는 데 있습니다. ... (중략) ...저들이 비록 왜인이라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서양 오랑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강화가 이루어지면 사악한 서적과 천주교가 다시 들어와 나쁜 기운이 온 나라를 덮게 될 것입니다.

- ① 의병 운동을 주도했으며 대마도에서 순국하였다.
- ② 왕궁, 일본 공사관, 민씨 일족을 습격하고 대원군을 옹립하고자 하였다.
- ③ 『조선책략』의 내용을 비난하고 이것을 가져온 김홍집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 ④ 『화서아언』에서 프랑스와의 통상을 반대하고 서양세력과 끝까지 항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 18. 조선총독부의 '문화 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선인의 협력을 부르짖는 국민총력운동을 전개하였다.
- ② 민족운동을 탄압하고자 치안유지법을 조선에도 적용하였다.
- ③ 조선인 계통의 신문인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발행을 허가하였다.
- ④ 친일파 양성을 겨냥하여 도 평의회와 부면 협의회를 만들었다.

문 19. 다음 격문을 발표한 인물들이 추진했던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비록 초야에 묻힌 백성이지만, 임금의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임금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 어찌 국가의 위망을 앓아서 보겠는가. 팔로(八路)가 마음을 합하고 억조창생(億兆蒼生)이 뜻을 모아 이제 의로운 깃발을 들어,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이다.

- ① 사창제 실시와 양전 사업을 주장하였다.
- ② 봉기군을 이끌고 황토현에서 관군과 교전하였다.
- ③ 고부읍을 점령하고 백산에서 농민군을 정비하였다.
- ④ 삼정의 문란을 비판하고 전운사를 혁파하려 하였다.

문 20. 밑줄 친 '합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보 기> —

- ㄱ.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약속한 것이다.
- ㄴ.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 ㄷ. 군사 당국자 간의 직통 전화를 가설하기로 하였다.
- ㄹ. 남북 불가침을 위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를 명시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및 해설

1.② 전한길필기노트 p.62

이 문제는 인종의 명에 의해서 김부식이 기전체로 쓴 삼국사기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향가 수록은 삼국유사, 동명왕에 대한 것은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며 삼국사기에는 단군신화에 대한 기록도 없고 발해사에 대한 기록도 없다.

2.④ 전한길필기노트 p.114

제시문은 전두환 정부 때 당시 민정당 대표이던 노태우가 발표한 6.29선언이며 이는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결실이었다. 사사오입 개헌은 제 2차 개헌으로 이승만 정부 때이며 6.29선언으로 전두환 정부가 발표한 4.13 호선 조치는 무효가 되었고 제 9차 개헌이 이루어 졌다.

3.① 전한길필기노트 p.7,8

제시문은 각각 구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특징을 가리킨다. 반달돌칼은 청동기시대에 사용된 간석기이며 암사동과 봉산 지탑리 유적은 신석기시대의 유적지이다.

4.④ 전한길필기노트 p.45

제시문은 영조 때 농민의 군포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여준 균역법에 대한 설명이다. 결작은 균역법 시행된 결과 군포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주들에게 토지 1결당 2두씩 쌀을 징수한 것이고, 호포제는 흥선대원군이 시행하였고, 신해통공은 정조 때 시행된 금난전권 철폐를 가리킨다.

5.③ 전한길필기노트 p.27,52,63

제시문은 이의민을 살해하고 집권한 내용을 통해서 최충헌의 '봉사10조'임을 알 수가 있다. 최충헌은 지눌과 같은 선종을 지원하였고 문신들 중 이규보를 발탁하여 활약케 하였다. 제조대장경은 강화도에 천도한 최우가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조판을 주도하였으며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발문은 지은 것 역시 최우이다. [이것을 몰라도 정답 찾는 데는 문제 없음]

6.② 전한길필기노트 p.102,103

제시문은 신간회의 강령이며 신간회의 활동을 묻는 문제이다. 의무교육은 1941년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인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고등교육기관 설립은 1922년 이상재 선생이 주도한 민립대학설립운동의 목적이었다.

7.③ 전한길필기노트 p.18,27,56

제시문은 최치원이 지은 '해인사 묘길상탐기'로 신라하대 혼란의 상황을 기록한 내용이다. 신라 하대의 혼란은 당과의 전쟁 때문이 아니라 신라 내부의 모순에 의한 것이다. 즉, 중앙에는 잦은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고 지방에는 귀족과 농민 반란이 계속 되었으며 그 결과 지방에는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 칭한 호족이 등장하였다. '장·처'라 불리는 왕실의 농장은 고려시대, 관료전 지급과 녹읍 폐지는 신라 중대 신문왕 때이다.

8.② 전한길필기노트 p.79

제시문은 1895년 7월에 공포된 ‘소학교령’으로 이에 근거해서 을미개혁 때 소학교가 설치되었다. 을미개혁 때는 그 외에도 단발령, 건양의 연호, 태양력, 종두법이 실시되고 우체사와 친위대 진위대가 설치되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 때 맺어진 조·일 무역 규칙은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으로 수정되었고 단발령 폐지와 의정부가 다시 설치된 것은 아관파천 이후이다.

9.① 전한길필기노트 p.86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서울에서 국채보상기성회가 만들어지고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 등의 지원 속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통감부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10.③ 전한길필기노트 p.31

조선시대 관계(官階)에 대한 문제이다. 조선시대 품계는 정 1품에서 중 9품까지 18등급으로 하였으며 관직과 관계가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수제도를 통해서 가능하면 관계가 일치되도록 노력하였으며(품계가 관직보다 높을 때는 ‘행’, 낮을 때는 ‘수’를 관직 앞에다가 붙여서 사용함) 정 3품 통정대부 이상은 당상관, 통훈대부 이하는 당하관이라 불렀으며 목민관인 수령을 담당할 수 있는 품계는 참서관인 중 6품 이상이며 참하관인 7품 이하는 수령이 될 수가 없었다.

11.④ 전한길필기노트 p.65

제시문은 송나라 사신 서경이 지은 ‘고려도경’에 나오는 비취색의 고려청자에 대한 설명이다. 고려청자는 왕실과 귀족들이 주로 사용하였으며 대표적인 청자 도요지는 전라남도 강진과 전라북도 부안이 유명하다. 상감청자가 제작된 것은 신라 말기가 아니라 고려 중기이다.

12.① 전한길필기노트 p.22

제시문은 왕건이 남긴 ‘훈요10조’의 일부 내용이다. 불교를 숭상하였던 왕건은 훈요10조에서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대하게 치러라 하였고 반면에 유교정치를 강조한 성종 때 최승로의시무28조에는 두 행사를 줄이려 해서 결국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다가 현종 때 부활하였다.

13.② 전한길필기노트 p.10

제시문은 각각 옥저의 민머리리제, 철제 농기구와 벼농사가 발달한 삼한에 대한 설명이다. 무천은 동예의 제천행사이며 대가들이 사자·조의·선인을 거느린 것은 고구려, 1책 12법의 형법은 부여와 고구려의 풍습이다.

14.④ 전한길필기노트 p.12,13,14

제시문의 빈칸에는 삼국의 불교를 수용한 왕을 묻는 문제로서 차례대로 고구려 소수림왕, 백제 침류왕, 신라 눌지왕과 법흥왕이다. 신라는 법흥왕 때 율령이 반포되고 상대등이 설치되었다. 고구려 평양 천도는 장수왕, 백제 사비 천도와 남부여로 국호를 변경한 것은 성왕, 황룡사를 지은 것은 신라 진흥왕, 황룡사 9층 목탑을 지은 것은 선덕여왕 때 이다.

15.④ 전한길필기노트 p.30

제시문은 김종직이 지은 '조의제문'을 성종실록에 기록한 그의 제자 김일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무오사화와 관련된 내용이며 김일손의 스승인 김종직의 인물사를 묻는 문제이다. 김종직은 길재의 학통을 잇는 영남사람으로 세조 때 정계에 나아가서 성종 때 여러 벼슬을 지내며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그의 제자 사람들은 주로 이조전랑과 삼사의 언관직에 많이 진출하였다. '국조오례의' 편찬은 신숙주가 주도하였다.

16.② **전한길필기노트 p.55**

제시문의 (가)는 관서(평안도)지역 차별에 불만을 품고 일어난 몰락 양반 홍경래가 주도한 홍경래의 난에 대한 설명으로 이 난에 가담한 사람 중에는 세도 정권과 결탁하여 특권을 누렸던 어용상인에 대한 불만을 품었던 중소상인과 광산노동자, 몰락농민 등이 많았다. (나)는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농민 착취에 불만은 품은 진주 농민들이 주도하여 일으킨 진주민란에 대한 설명이다. 진주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된 입술농민봉기는 삼정문란이 주된 원인이었으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노비문서 소각은 입술농민봉기가 아니라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이 요구한 내용이다.

17.① **전한길필기노트 p.76,83**

제시문은 강화도 조약 반대 상소인 최익현의 '5불가소'에 대한 내용이다. 최익현은 흥선대원군의 서원 정리 반대 상소를 올렸고 왜양일체론에 근거한 강화도 조약 반대 상소를 올렸으며 을사늑약이 맺어지자 이에 대한 반대의 뜻을 담은 '포고팔도사민'의 격문을 내걸고 을사의병을 일으켰지만 당시 일본군에 의해서 대마도로 잡혀가서 순절하였다.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대원군을 옹립한 것은 임오군란, 2차 수신사 김홍집이 들고 들어온 '조선책략'의 유포를 반대한 것은 이만손과 홍재학의 상소, 프랑스와의 통상을 반대하고 서양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위정척사운동의 선구자였던 화서 이항로와 기정진이다.

18.① **전한길필기노트 p.91,92**

1920년대 일제의 문화통치의 본질을 묻는 문제이다. 1940년에 조직된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주도한 국민총력운동은 1940년대의 식민 수탈 정책이었다.

19.① **전한길필기노트 p.78**

제시문은 전봉준이 주도한 동학농민운동의 백산봉기 때의 격문이다.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농민군은 황토현과 황룡촌에서 관군을 물리치고 전주성을 점령하기도 하였으며 고부군수 조병갑의 삼정문란을 비판하고 당시 조세 운반을 주관하면서 농민들을 착취하였던 전운사를 혁파하려 하였다. 반면에 사창이라는 마을 단위의 창고를 만들어놓고 양반 자치적으로 곡식을 빌려주면서 농민 착취의 수단이 되었던 사창제 실시와 양전사업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20.④ **전한길필기노트 p.117**

제시문은 1991년 12월 13일에 합의된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의 일부이다.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한의 상호 불가침과 '군사 당국자' 간의 직통 전화(남북한 직통전화 가설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때)를 가설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합의한 것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이며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남북기본합의서보다 3개월 앞선 1991년 9월이다.